

라틴 아메리카의 라틴 건축

Latin Architecture in Latin America

필요한 몇 가지 선입감 / 문화 유전자

관점 / 왜 지구의 반대편을 보는가

두 가지가 못마땅하고, 두 가지가 궁금했다.

이 대륙을 '신세계'라 하는 것이 첫째이고, 누군가가 '발견' 했다는 것이 두 번째 못마땅한 일이다. 우리는 또다른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처럼 문화상대주의에 휘말려 이 일을 그냥 '신세계 발견'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대륙은 5천년부터 그 자리에서 문화를 일구고 있었다.

거기가 궁금함은 '전통이 진보에 어떻게 작용하는가'가 첫째이고, '전통은 근대에서 어떻게 타협 하는가'가 두 번째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우리의 근대적 경험과 아주 닮았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서양이 동양에 반응되는 방식에서 우성과 열성, 기독교와 이단, 문명과 미개라는 이분법적 인식 구조에 익어 왔다. 이 타성은 포스트-구조주의까지 당사자나 제 3자나 모두 그 정의(正意)에 게을렀던 차, 최근 라틴 아메리카 자신이 새로운 시선을 들고 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모던인가.'¹⁾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비서구(非西歐), 제3세계(第三世界), 식민지(植民地) 경험의 나라들은 모두 그러하다. 주저 없이 모던은 진보를 위한 궁극성이었으며, 구태(舊態)의 일탈에서 절대적 가치로 휘둘렸

다. 정말 다른 선택이 없었는가.

문화의 관계성

한 시대는 앞 시대에서 얻어 뒤 시대에 주며 유전자를 전이한다. 한 지역의 문화는 이웃과 유전자를 교환하면서 끊임없이 잡종강세(雜種強勢)를 도모한다. 그렇게 각 지역의 문화는 세계의 지구적인 그물 관계에 얽히게 된다.

지구에서 어떤 세계의 문화도 독립적이지 않고, 지역 문화도 개별적이지 않다. 다시 말해 지역문화를 가치로 말하는데 독자적이라거나 고유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썩잖은 일이다.

종의 다양성, 혼합의 가치, 선택과 대안 등 무수히 많은 시선이 있을 수 있다.

문화의 컨텍스트 / 문화의 교차, 혼성

이 짧은 발표 시간에 한 대륙의 현대건축을 말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전통에서부터 시간적 맥락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맥락주의(脈絡主義)는 일반적인 사관(史觀)에서도 뻗은 사실이지만, 중남미 문화에 대해 보편적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그러하다.

라틴아메리카 건축의 유전자

1) 니콜라 밀러 · 스티븐 하트 저,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역 / 라틴아메리카의 근대를 말하다 / 트랜스라틴 총서_1 / 2007



필자 : 박길룡, 국민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by Park, Kil-Yong

박길룡 교수는 홍익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국민대학교 조형대학과 건축대학에서 세계건축사를 강의하며 건축설계를 지도하고 있다.

한국현대건축을 위한 저술로서 『한국현대건축의 유전자』, 『세컨드 모더니티의 건축』, 『한국현대건축을 위한 9개의 탐침(공저)』 등을 통해 비평적 사관을 펼쳤

다. 특히 문화교차의 관점에서 세계건축의 동향을 찾아다니고 있으며, 그 견해 『시간횡단, 건축으로 읽는 터키 역사』와 『남회귀선, 라틴아메리카의 문명기행』 등으로 출판한 바 있다.



좌: 히랄다 (La Giralda), 세비아 대성당 / Seville, Spain / 아래의 사각탑은 이슬람 시대 모스크의 미나렛이고 그 위에 얹힌 둥근 첨탑은 기독교 탈환 이후에 더하여진 성당의 종탑이다.



위: Mezquita Catedral / Cordoba / 원래 이슬람의 모스크로 지었으나, 기독교의 탈환 이후 성당이 덧 지어 졌다.



Spain과 Latin America의 바로크 / 좌: Hospicio de San Fernando / Madrid, Spain / 18C 우: Igreja de Ordem Terceira de São Francisco / Salvador, Brasil

문화의 상호 교섭에서 유전자가 전이되고 종은 다양해진다. 건축문화에서도 잡종강세(雜種強勢)를 믿으며, 세계의 건축의 문화교차의 현상을 벌이는 살피는 중 라틴 아메리카에서 다시 확신했다.

세계의 건축은 모두가 하나의 유전자 그물에 얽혀 있으며, 독립적이거나 개별적일 수 없다. 이 그물은 입체적인 구조인데, 수평적으로는 지역적으로 얽힌 모양이고, 수직적으로는 시간의 관계이다.

식민과 문화 사이

우리가 지금 라틴아메리카라고 부르는 대륙의 원초문화와 이베리아의 문화가 교환하면 어떤 유전자 조각이 벌어진다. 여기에서 우성과 열성이 작용하며, 그 관계는 자의적이지 않다.

原 문화

서로 존재조차 모르던 문화들이 있었다.

이베리아에서부터 촉발되는 대항해 시대 이후 이 대륙에서 '발견'되는 문화는 경이롭지만, 서양의 시선에서 보면 '이단'이며, '원시'이다. 유일신은 어떤 토착종교도 용납하지 못하고 제국주의는 팽창하여야 하기에, 이교도는 개종과 서구 문화로 개조시키는 일을 미션이라고 했다.

그들이 '신세계'라고 하는 이 대륙의 문화는 줄잡아도 5000년의 역사이다. Olmeca, Maya, Mexicana, Azteca, Pre-Inca, Inca 그리고 Amazonas를 비롯하여 수많은 토착문화가 전통으로 이어가고 있었다. 그 원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또 차이를 만들어 가고 있

었다. 1492년 거기에 이베리아인이 올라 왔다.

인디헤나 푸에블로의 전통이 모더니즘에 장애로 작용한다는 것은 植民史觀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러하다. 여기에서 전통이 궁극적으로 문화 진보의 힘으로 작용하는가의 질의가 끼어든다. 라틴아메리카에 두 가지 유전자를 심는데, 무데하르이고 다른 하나는 추리게레스코이다.

Spain Mudéjar

이베리아의 건축이 중남미에 전이될 때 이미 그들의 유전자에는 북아프리카 이슬람의 원소(元素)가 들어 있었다. 특히 남부 스페인에 710-1500년 동안 침착(沈着)되었던 Moor의 양식은 안달루시아 건축에 특성을 이루며, 그 유전적 성질이 유럽의 중세건축과 이베리아를 구분하는 특성이 된다. 개연적으로 이 유전적 성질이 중남미에 묻어 들어온다.

Spain Baroque 특별히 Churrigueresque

중남미의 식민지 시대는 유럽의 바로크 시기에 해당한다. 식민지는 이베리아의 문화를 닮고 싶은데, 본국은 식민지에 최고를 보내지 않는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 중에서 국가적 사업이 아니면, 토착 기술에 의존하기에 양식(樣式)의 변태(變態)가 불가피하다. 어떤 경우 토착 장인(匠人)들은 슬그머니 그들의 디자인 언어를 끼워 넣기도 한다.

17-18세기 스페인의 바로크는 추리게라 Churriguera²⁾ 풍의 장식적 바로크를 특징으로 한다. 이 양식은 장식미술에 열정적이며 디테일의 구사가 세밀한데, 이를 라틴아메리카가 답습한다. 식민지가 습득한 장식미술은 기독교 미션과 결합되며 훨씬 더 극적인 매너에 빠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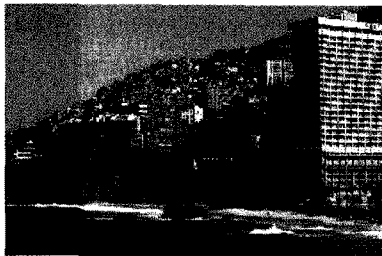
2) 건축가 호세 베니토 추리게라 Jose' Benito Churriguera의 독특한 스타일

혼혈(Mestizo) 문화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성질은 인종구조(人種構造)와 관계된다. 중남미의 인종에는 원주의 인디오가 있었고, 이베리아의 백인이 들어오며, 그 사이에 혼혈이 생기는데 그들을 메스티소(mestizo)라 한다. 혹독한 노동착취와 전염병의 만연은 인디오의 씨가 마를 지경이 되고, 노동력 부족이라는 곤란에 빠진다. 17세기 중엽, 부족한 노동력을 배우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흑인이 사냥되어 노예로 실려 온다. 여기에서 흑인과 백인의 혼혈이 생기는데 그들을 몰라토(molato)라 한다. 피의 교체가 너무 심한 잡종은 비인종(非人種)이라 하였다.

중남미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혼혈문화는 생활과 건축에서 그대로 전이된다.

브라질 살바도르의 오리사스(Orixás)는 서아프리카(오늘날의 베닌, 콩고 지역)의 토착문화가 노예 수입과 함께 바히아 지역에 상륙하여 기독교와 혼합된 것이다. 브라질 가톨릭은 다분히 우상숭배라고도 할



중남미에서 빈부 차이는 보편적인 문제이다. Favela / Rio de Janeiro 아래쪽은 관광산업과 외국 투자가 활발한 해변 휴양지이고, 산 위쪽은 고질적인 브라질 빈민촌 파벨라이다.

오리사스를 허용한다. 오리사스는 아프리카 전통의 만신(萬神)으로서 자연에 여러 성령을 믿음이며, 신마다 인간의 모습을 가진 아이콘이 있다. 이 아프리카 종교 의식은 다분히 행위몰입(行爲沒入)으로 가는데 그것이 미사 형식과 결합되며 성당의 신랑(身廊)을 훔쳐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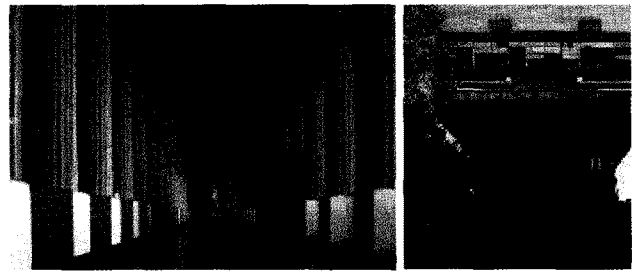
멕시코 근대건축의 특별함은 마야와 아스테카라는 깊은 전통과의 정서적 교합 때문이다.

모더니즘의 배태(胚胎)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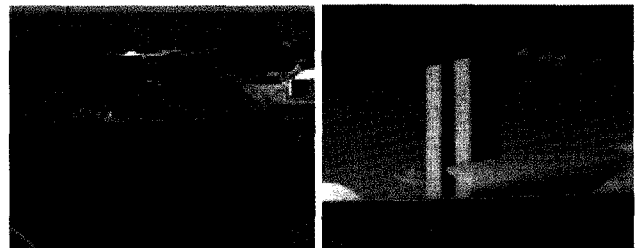
끄리오요(Criollo) 인구

백인이면서 식민지에서 태어난 사람을 끄리오요라고 한다. 그들은 식민지에서 지배계급이지만, 본국 사람들과는 차별되는 위치에 있었다. 이 식민지 백인들은 독립이 되고도 가독권처럼 권력을 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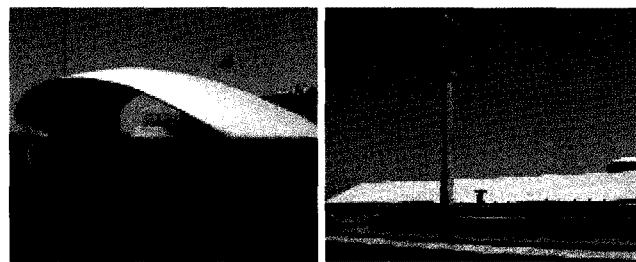
비교적 끄리오요의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과 인디오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모더니즘의 성취도에서 차이가 난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토착적 성질을 희박(稀薄)시키는 속도와 정도로 나타난다. 아르헨티나, 칠



Eva Perón Foundation / Facultad de Derecho y Ciencias Sociales / Buenos Aires / 기념적인 고전풍의 현관



Axio Monumental / Brasilia / Congreso Nacional / Brasilia / 1960 / Oscar Niemeyer



Pampulha / Igreja São Francisco de Assis / Belo Horizonte / 1943 / Oscar Niemeyer

레의 끄리오요 비율이 높고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등은 인디애나의 인구 비율이 높다.

비교적 풍부한 자원 / 개발과 외산자본

식민 시대 자원은 이베리아를 살찌우는 자원이었지만, 독립 후에도 중남미의 삶을 진보시키는데 효용되지 않는다. 한동안 서구의 자본 제국주의의 착취에 시달리며, 끄리오요의 가독권 행사는 부익부 빈익빈의 상태를 지속시킨다. 도시와 건축의 환경에서 자원과 자본은 절대적인 조건이지만, 이 자본의 행방이 모던 국가에 얼마큼 도도되는가는 지역마다 달랐다.

정치 환경 / 프로퍼갠터와 건축문화

식민지들은 독립이 되고도 상당한 기간 동안 독재에 시달린다. (우

리나라도 그랬지만) 정치적 불안정은 문화의 기동력을 잃게 한다. 페루에서는 20세기 후반까지도 공산주의, 마오쩌둥(毛澤東)주의가 횡행했다. 다시 말해 정치적 안정을 보다 빨리 이룬 지역이 모더니즘의 성취도가 빠르다.

정치가 예술을 프로퍼갠더로 이용하며, 근대성의 발목을 잡는 경험은 (우리도 그러했지만) 중남미에서 하다하다. 문화가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때, 고전주의가 부활된다.

베론과 에바가 포퓰리즘을 펼치던 Eva Per'n Foundation은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20세기로서는 시대착오 미학이다. 에바의 사후, 이 신고전주의의 건축은 대학이 되었지만, 에바와 관료주의가 만든 정치적 건축은 아직도 허다하다.

브라질의 21대 대통령(1956-61) 쿠비체크(Juscelino Kubitschek)는 그의 통치기간 동안에 국가재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건설 드라이브를 걸면서 브라질리아 건설을 추진한다. 쿠비체크는 벨루오리존치 시장일 때 오스카 니마이어와 많은 프로젝트를 이루고 서로 만족해 하던 사이이다. 1956년에서 1959년 까지 3년 만에 완성되는 브라질리아는 O.니마이어 프로퍼갠더의 현장 무대이다.

아열대(亞熱帶) 풍토

토착적 성질과 식민지 시대 유산은 모더니즘으로 탈색되지만, 브라질의 건축은 여전히 '브라질의 환절'을 가지고 있다. 태양과 그림자, 넓은 바다와 녹음의 언덕, 게으름 그러나 진취적인 행동, 그래서 브라질 건축은 더욱 회화적 장면이 되며 기후와 사람의 성격이 얽힌다.³⁾ 이 모두가 구축적(構築的)으로 중첩(重疊)된 것이 브라질 모던 스타일이다.

기술 / 콘크리트

중남미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건축공학의 기술적 수준은 부럽다. 특히 콘크리트를 다루는 기술과 조형의 솜씨는 세계적이다. 자연히 이러한 기술적 자신감은 거대 구조, 장대한 스펠, 거대 공간의 실험을 활발히 한다.

모더니즘 / 우리는 언제부터 모던했다

흔히들 좀 잘못된 내용이나 시스템을 '전근대적'이라고 한다. 촌스러운 것도, 덜 된 것도, 모자란 생각도 전근대적이라고 한다. 그러나까 근대적이라는 것은 잘된 것, 완전한 것, 충분한 것의 뜻이기도 할까?

우리도 그랬지만, 근대가 절대적 가치로 작용했고 그 성취를 국가적

목표로 했다. 여기에서 제 3세계는 모더니즘에 '함의'하고 스스로의 문화 질량을 계량하기 위해 서양의 '척도'에 얽어 놓는다.

근대주의는 양식인가

근대주의는 양식이 아니다. 근대건축의 모습은 무의식적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세계의 건축이 함께 나누려고 만든 스타일은 아니다. 20세기에 들어 인류는 지난 5000년의 양식건축(樣式建築)을 거둬들이고, (물론 서구가 일으키지만) 새로운 미학을 혁명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더니즘은 어떤 정신이며 문화 태도였다.

그런데 그것이 세기(世紀)의 가치가 되며 지구(地球)의 문화 규범이 된다. 제3국가들도 스스로 모더니즘의 도그마에 함의(含意)하고 그것을 스타일을 모사하며 어떤 성취감을 느꼈다. 거기에는 어떤 선택도 대안도 없는 줄 알았다.

근대적 함의와 척도론⁴⁾

20세기를 통해 세계는 줄곧 모더니즘이 지시하는 방향을 시선하고, 서양적 가치에서 동작을 규합하는 일종의 메스게임에 열중했다. 그리고 제3국가들은 그들의 지역적 가치들을 변방(邊方)에 두고 왔다.

문화교차에서 우성(優性)과 열성(劣性)이 구분되고, 지배와 피지배 문화의 관계가 형성되며, 선진 문화와 후진 문화가 갈라졌다. 모두가 별개의 가치일 것 같던 지역문화들이 '근대(近代)에의 함의(含意)'에 연대적 참여가 벌어진다. 각국은 이러한 문화적 연대로부터 고립될 때 일종의 공포를 느끼며 스스로 영향권에 들어서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일단 근대성에 가치관을 둔다고 하더라도 그 성취도는 국가마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제 세계는 근대성의 성취도를 계량하는 스케일을 만든다. 그것이 '모더니즘의 척도론'이다.

근대주의가 세계의 보편적 가치로 행세하지만, 형편과 지역에 따라 그에 도달하는 성적은 다르다. 한 지역이 얼마나 근대에 이르고 있는가는 척도가 만들어 지면서, '고급 근대'와 '덜 된 근대'와 '비근대'의 계량이 벌어진다. 지역마다 몇 점짜리 근대성을 성취하고 있는가는 곧 '선진'과 '후진'의 가늠이기에 모든 문화적 가용 에너지를 모더니즘에 쓰고자 한다. 그리고 지역문화들이 근대성의 척도치(尺度值)를 높이려고 할수록 토착성으로 부터의 일탈 또는 타협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구조의 틀이 느슨해지며 타협이 벌어진다. 제3세계를 중심으로 이 보편적 가치라는 것에 대한 회의가 일기 시작했다. 선택적, 대안적, 수정주의의 모더니즘을 모색하였다.

3) Zilah Quezado Decker / Brazil Built The Architecture of the Modern Movement in Brazil / Spon Press / 2001 / 156

4) 니콜라 밀러 · 스티븐 하트 저,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역 / 라틴아메리카의 근대를 말한다 / 트랜스라틴 총서_1 / 2007

바로크와 근대성

바로크와 근대성은 원천적으로 모순되는 의미이다. 근대성과 낭만성의 모순은 타협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꼭 그러한가의 반문 이 라틴 아메리카의 모더니즘에 비접고 든다.

원천적으로 마야, 아스텍의 예술은 바로크적이었고, 그것이 20세기 까지 유전적 전이를 이루는 사이에 터득한 시형식(視形式)이다.

수정주의

루이스 바라간은 형태를 버리면서 양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나서, 남는 여전히 중요한 것, 질료, 색채, 빛이 멕시코의 서정주의를 분명히 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근대건축에서 주목되는 것은 작가의 개별성과 모더니즘의 활달한 타협이다.

모더니즘 이후

라틴 아메리카의 현대건축은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인상된다. 첫째는 여전히 중요한 전통의 가치 또는 지역적 정서이며, 두 번째는 세계성 또는 신국제주의이다. 먼저 것은 진보를 지적거리게 하는 원인이 될지 모르며, 두 번째 것은 먼저 것의 가치가 이제 시한 종료되는가의 걱정이다.

무의식적 국제성

20세기 후반 세계는 또다른 국제주의에 휘둘리고 있다. 최소한도 1932년 헨리 러셀 히치콕의 국제주의(Internationalism)는 이념이었지만, 21세기에서 벌어지는 신국제주의는 스타일의 공유이다. 마치 세계는 글로벌이라는 패션 시장과 같다.

좀 더 거시적인 시선에서 지구문화를 보면 관계는 세계가 얼마나 동질성을 향해 가속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개체간의 교환 또는 다자간의 관계는 곧 확장을 의미한다. 언 듯 이합집산의 패턴을 만들며 끊임없이 다양성을 만들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에는 모더니즘에 모두 모여 들었다. 그리고 이제 이합(離合)은 다른 국면에서 집산(集散)을 이루고 있다.

신국제주의에서 지역성이 세계성에 포용됨은 통째로 벌어지는 일이다.

다. 단계적이지 않고 위계적이지도 않기에 통시적 동시성이다. 세계의 건축이 국제주의를 이루는 데에는 '함께 할 것'을 의식하지도 않고, '같이 있을 것'의 맥락도 아니다. 같은 것을 같이 하는 것은 이념의 동조가 아니다. 자발적 파동의 시스템에 들어가 있다.

이제 세계는 같은 재료를 함께 쓰며, AutoCAD라는 설계 시스템을 공유하며, 정보를 공시한다. 결국 같은 문화를 같이 하는 아바투스에서 건축은 자꾸 패션이 된다.

아열대 모더니즘

극도로 단순화 하여 말하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식민지성과 근대성은 동의어이다⁵⁾. 그것은 우리나라와 제3세계의 대부분이 마찬가지이다. 그 해답이 라틴아메리카만이 가능한 아열대(亞熱帶) 모더니즘이다. 수정주의, 선택적 모더니즘, 여전히 중요한 태양, 기후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스타일을 만든다. 낙관성, 넉넉함이 아열대 모더니즘이다.

문화는 뒤척이며, 이중과 섞이며, 끊임없는 유전적 변이를 통해 진화한다. 역사에서도 엄연한 법칙이 잡종강세인 것만은 알았다. 다만 문화교차의 진화법에는 필요하고도 충분할 조건이 있는데, 바로 모태(母胎)의 건강이다. ㉮

참고문헌

- 니콜라 밀러 · 스티븐 하트 저,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역 / 라틴아메리카의 근대를 말하다 / 트랜스라틴 총서_1 / 2007
- 월터 D. 미놀로 저, 김은중 역 / 라틴아메리카, 만들어진 대륙 / 트랜스라틴 총서_3 / 그린비 / 2010
- 우덕룡, 김태중, 김기현, 송영복 / 라틴아메리카 / 송산출판사 / 2003
- 송상기 / 멕시코의 바로크와 근대성 / 고려대학교 출판부 / 2002
- Felipe Hernández, Mark Millington, Iain Borden 편 / Transculturation Cities, Spaces and Architectures in Latin America / Amsterdam / 1998
- Lauro Cavalcanti / When Brazil was Modern 1928-1960 /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 2003
- Carlos Briembourg 편 / Latin American Architecture 1929-1960 Contemporary Reflection / The Monacelli Press / 2004
- Jay I Kislak Foundation, Miami Lakes / Cruelty & Utopia
- 박길룡 / 남회귀선 / 한길사 / 2010

5) 월터 D. 미놀로 저, 김은중 역 / 라틴아메리카, 만들어진 대륙 / 트랜스라틴 총서_3 / 그린비 / 2010